



강용운 작 '부활'



천경자 작 '접시꽃'

시대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 작품 만나다

광주시립미술관, 2023년 3월5일까지 '신소장품' 전 조방원·오지호·양수아·이중구·임옥상 등 작품 52점

미술관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의미있는 소장품을 수집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일이다. 올해 개관 30주년을 맞은 광주시립미술관은 기증, 구입 등을 통해 작품을 수집, 이를 바탕으로 남도 미술의 흐름을 연구하고 매년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선보여왔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 2021년에는 모두 92점의 작품을 수집했다. 구입 11점, 이권희컬렉션 기증 30점, 기증 8점, 유상 기증 3점, 광주국제아트페어 구입 40점 등이다.

'신소장품 2021'전이 7일 개막, 내년 3월 5일까지 3·4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신규 소장품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열린 '이권희 컬렉션'전과 대어 작품을 제외한 52점으로 서양화, 한국화, 조각, 사진, 뉴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전시는 근현대 미술의 진수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신소장품을 미술사와 장르별로 연구, 네 가지 주제로 분류해 선보인다.

첫 번째 주제는 '한국화'로 지역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작가들을 만난다. 천경자의 '접시꽃'은 전남여고 교사 시절 그린 작품으로 전통 동양화 기법의 담담한 채색을 통해 접시꽃의 아름다움을 묘사했다. 또 조방원의 '추상'은 거친 숲에 둘러쳐진 작고 납부한 집과 검은 나무, 빨강 계 물든 나무 등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그밖에 박행보·허달재 등 남도 한국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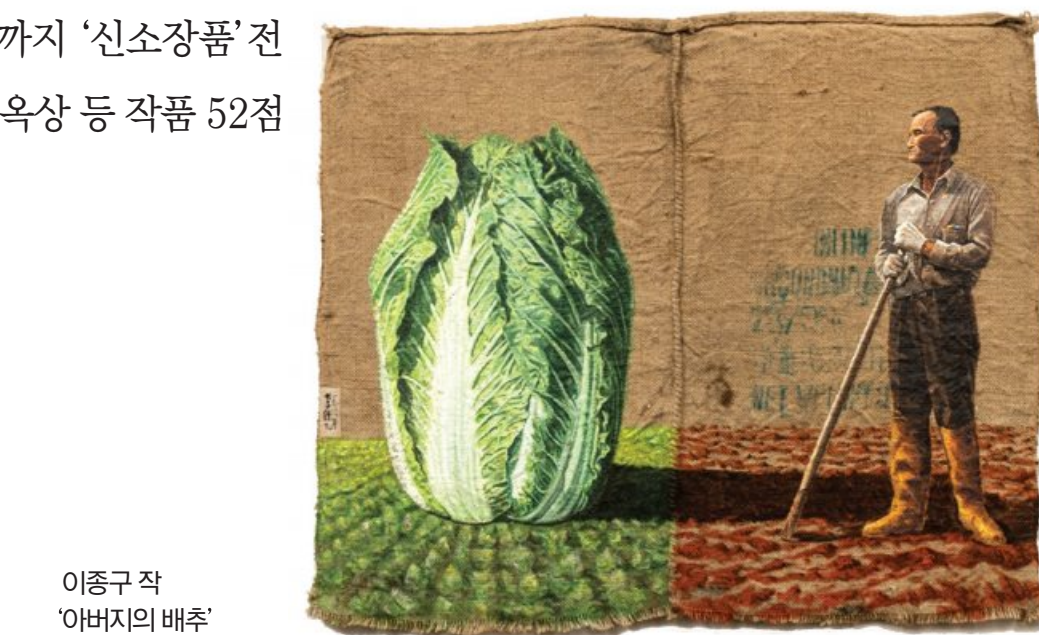
'몽상가'

조각가 위재환 전시회가 오는 14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플리곤(광주시 남구 양림동 225-25)에서 열린다.

'뫼비우스의 띠'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내부 갤러리와 야외 공간까지 활용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어느 날 작업실에서 석양에 날아가는 철새들의 비행을 보고 다시 제작자로 찾아오는 뫼비우스의 띠를 떠올렸고,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으로의 서투른 여행"을 제안하며 다양한 작품을 제작했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몽상가'는 반복되는 일상 이야기 이어지는 현대인의 삶에 위로와 힐링을 주는



이중구 작 '아버지의 배추'

두 번째 주제 '서양화'에서 만나는 오지호의 '만추'는 황토색 땅과 노랑·갈색으로 물든 늦가을 산의 모습을 독특한 시각과 감성적인 색채로 표현한 작품이며 색의 번짐과 대담한 색채가 인상적인 배동신의 '정물'도 눈길을 끈다. 또 추상화를 주로 그렸던 양수아가 그린 '무등산'과 강렬한 색채가 인상적인 강용운의 '부활'을 비롯해 최재창 등 남도 추상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세 번째 주제 '세상을 보는 눈'은 민중미술을 비롯해 우리가 몸 담고 있는 현대사회를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본 작품을 만난다. 이중구 작가의 '아버지의 배추'는 캔버스 대신 중국산 수입 포대에 충남 서산 오지리 사람들을 그린 작품으로 힘든 농촌 현실을 늙은 농부의 초상으로 표

현했다. 그밖에 한국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임옥상 작가를 비롯해 조근호·윤준영·이정기 등 자신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주제의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인다.

마지막 주제 '다양한 매체'에서는 사진, 판화 등 매체를 활용한 작품을 볼 수 있다. 노정숙·박구환 등의 판화 작품과 김영태·황정후 등의 포스트모더니즘 사진, 김진화·정승원 등의 현대적 감각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를 기획한 광주시립미술관 오병희 학예연구사는 "2021년 미술관에서 수집한 신규 소장품은 다양한 장르와 시대를 아우르는 작품으로 예술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모두가 꿈꾸는 세상으로의 여행"

위재환 전시회

14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플리곤

존재다.

전시장에서 만나는 5m 높이의 철새는 철판을 응집해 만든 작품이다. 어디론가 떠났던 철새가 모두 다 돌아오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흘러가는 삶의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이다.

'꿈(夢)'을 주제로 구성된 공간에는 행복찬 상상을 하는 고래와 그 위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인물상을 놓았다. 같은 구도의 드로잉 작품도 눈길을 끈다. 작품 속 고래는 우리에게 환경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장치이기도 하다.

다양한 꿈을 꾸는 30여명의 크고 작은 몽상가들을 만나는 공간도 눈에 띈다. 조각 작품을 캔버스 삼아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감으로 제작한 몽상가를 바라보며, 자신의 꿈을 대입해 보기도 한다.

야외에서도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붉은 벽돌의 갤러리 외관과 커다란 나무 속에 자리한 '몽상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작품 재료는 목직판 청동과 변용이 자유로운 FRP 등을 함께 썼다.



호랑가시나무 아트플리곤에서 열리는 위재환 전

조선대 대학원에서 조각을 전공한 위 작가는 지금까지 10여차례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광주시 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다. 광주조각회, 21세기정신조각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슈베르트 곡 노래하는 '겨울나그네'

13일, 전남대 예향홀

눈 덮인 겨울의 황량한 벌판, 앙상한 나뭇가지, 살을 에는 듯한 추위...

부쩍 추워진 계절, 슈베르트의 가곡집 '겨울나그네'를 노래하는 무대가 마련됐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주최하고 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학과가 주관하는 공연 '겨울나그네'가 13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예향홀에서 열린다.

무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대 리트와 오라토리오과를 최우수 졸업하고 스위스 칼리도스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인 바리톤 박홍우와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신수경이 꾸민다.

슈베르트가 30살 때 작곡한 가곡집 '겨울나그네'는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백조의 노래'와 함께 슈베르트 3대 가곡집으로 알려져 있다. 발헬름 뮐러의 시집 속에 포함된 24편의 시를 순서만 바꾸고 모두 사용했으며 음울하고 어두운 정



박홍우



신수경

서를 띠고있다. 이날 무대에서는 가곡집 속 24곡을 모두 선보인다.

'겨울나그네'를 만들 당시 슈베르트는 가난에 시달리며 고독한 삶을 살고 있었고 가곡집을 완성한 이듬해 가난과 병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가사의 외형에는 실연한 청년의 비애를 눈 쌓인 겨울 풍경과 결부시킨 듯 하지만 내면에는 소외된 채 사회적으로 실패한 한 인간의 처절한 절망감이 담겨있다. 전석 초대. 문의 062-530-0120.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ACC '신라시대 연희 무대' 선보인다

10일 ACC 예술극장 극장1

'향약잡영'은 신라시대 최치원이 지은 5수의 한시다. 공연을 묘사한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사료적 가치가 크다. 특히 당대 공연인 대면·금환·산예·월전·독이 다섯 수의 짧은 시로 묘사돼 있다.

'향약잡영'의 다섯 가지 이야기가 춤과 노래의 연희극으로 재탄생해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은 오는 10일 오후 5시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신라시대를 모티브로 한 연희를 선보인다. 일명 '대동연희:향약잡영오수-최치원놀이'.

올해로 5회를 맞는 대동연희는 '향약잡영'을 다섯 마당 연희극 형태로 풀어냈다. 불평등과 전쟁, 빈곤 등 목직만 메시지를 해학과 풍자로 전하며 대중 세상을 지향한다.

ACC도 시대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천 년 전 대학자 최치원을 소환해 그가 꿈꾸던 공정한 세상을 탈춤과 무용, 기예 등이 어우러진 전통연희로 구성했다. 긍정적 기운을 북돋우는 사자가면극 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했다.

예술감독을 겸한 극작가 사성규의 끝까지 넘치는 이야기와 재주공작소 모락모락의 기예, 연희공방 음악장편의 재담 넘치는 연희극 등도 볼거리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임을 위한 행진곡 세계화 포럼'

12일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임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 5월의 노래이자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노래다. 82년 4월에 만들어져 우리나라는 물론 홍콩과 중국, 대만, 미얀마 등 세계 각국에서 불려지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세계화를 위한 포럼이 열린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봉민)은 오는 12일 오후 5시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세계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광주의 콘텐츠를 매개로 세계의 민주화와 인권의 현장에 공감하고 연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재단은 그동안 창작관련악곡, 뮤지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다.

포럼의 주제는 'It's not just here'이며 '임을 위한 행진곡'의 세계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포럼에서는 광주교육대학교 윤관기 교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사회적·인문학적·음악적 평가와 확장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어 싱어송라이터인 손병휘 서울민예총 이사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 세계화의 현장이야기'를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가 끝난 이후에는 김대현 시사평론가의 사



임을 위한 행진곡 원본 악보

회로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이미진 피스 솔가 대표, 정치철학자 이진, 뮤지컬 '광주' 유희성 예술감독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2부에서는 뮤지컬 '광주' 배우(조희, 최지혜, 김은숙)가 참여하는 갈라 공연이 펼쳐지며 공연단체 순수팀과 손병휘의 무대가 이어진다.

무료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관광재단 '2022 광주관광컨퍼런스&어워드'

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관광재단이 12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2022광주관광컨퍼런스&어워드'를 개최한다.

재단 설립 2주년을 기념해 광주관광발전을 위해 걸음해온 지역 학계, 기업, 협력 파트너 등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관광의 미래 전략과 비전을 논의한다.

먼저 박성수 광주관광발전포럼 회장과 김진강 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로 막을 열고 관광발전포럼 활동 및 성과를 영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다음으로 박상원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의 '글로벌 관광 트렌드와 지속 가능한 광주관광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진행한 뒤 이형주 VM컨설팅 대표의 '유니크베뉴 활용 관광

도시 브랜드 창출'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진다.

안지영 인문공방 대표는 '스토리텔리를 통한 지역 특화 전략'을, 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 연구원은 '빅데이터로 본 광주관광'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마지막으로 강진성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광주관광전략 종합 논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2부 '어워드-별빛페스타'에서는 뉴스로 보는 2022광주관광3대뉴스를 주제로 김진강 대표이사가 재단 2023 비전을 발표한다. 이어 오후 5시부터는 광주관광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이 열린다.

3부에는 관광학계,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네트워킹 파티가 펼쳐진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